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문민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4차년도 자료 중(2021년 기준) 고등학교 1학년 2,26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9.0, SPSS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그릿 및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그릿 및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그릿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은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고등학생,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

논문 투고일: 2025. 07. 30. 최종심사일: 2025. 08. 20. 게재확정일: 2025. 09. 20.

*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Corresponding Author: Moon, Min Kyung, Gwongwang-ro 293,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16486. E-Mail : mk7moon@daum.net

I. 서 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을 꿈꾸고 원한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부모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이 만족스럽기를 원할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부모는 자녀의 삶에 대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며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13~18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6.72점으로, 2020년 6.67점 대비 소폭 상승한 점수이지만, 코로나 이전 2017년 조사 결과인 6.77점보다는 여전히 낮은 점수이다(김지경·송현주·김균희·윤현솔, 2023). 또한 OECD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22에서 보고된 15세(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대한민국은 10점 만점 중 6.36점으로 OECD 국가 평균 6.75점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ECD, 2022), 이는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각 단계의 과업을 수행해나가면서 성공과 좌절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성인이 된 후 원만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할을 배우며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심리적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애 전체에 걸쳐 부적응이나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신영·정혜원, 2023; 서재욱·정윤태, 2014; 최형임·문영경, 2013; Yang, 2008). 실제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신체적 건강, 학업성취, 문제행동,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유혜선·조영민, 2025; 기채은·이예진·노영민·노진원, 2019; 오윤선·최아람, 2019; 오은주·남재걸, 2017). 이처럼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주관적 안녕감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한 주관적인 만족 수준을 의미한다(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이봉주, 2019). 구체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인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2008). 이러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구사회적 요인, 개인 외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신유진·정혜원, 2025; 안지혜·윤유동·임희석, 2016),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 소득, 나이, 성별 등이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임낭연·이화령·서은국, 2010). 개인 외적 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교환경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염유식·김경미·이미란·이진아, 2014)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화목한 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간이 태어나 처음 접하는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되는 것으로, 자녀의 성격적, 인지·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을 발달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Darling & Steinberg, 1993).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양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고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권윤정, 2017), 부모양육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Becker(1964)는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인을 따스함-적대감(warmth-hostility), 제한-허용(restrictiveness-permissiveness), 불안한 정서적 개입-침착한 거리두기(anxious emotional involvement-calm detachment)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Skinner, Johnson, 그리고 Snyder(2005)는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의 여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로 분류되는 요인은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이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분류되는 요인은 '거부', '강요', '비일관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부모양육태도 구성요인은 Skinner 등(2005)의 분류를 따르며, 부모 자신의 응답이 아닌, 청소년인 자녀가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으며(박주희, 2016; 이성희, 2002), 자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역시 자녀의 주관적 지각을 통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허미경·

도미향, 2025), 자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어왔는데,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박봉환, 2023; 김형희·박희서·최치원, 2020; 고미숙, 2017; 박은민·백서희, 2017)는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었으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서선숙·백진아, 2020), 자녀의 우울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된다(전명순·김태균, 2018)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어느 한 변수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김선미·박수진·김경아·김영희, 2023; 진병주·정혜원, 2020; 전명순·김태균, 2018; 박성희·최은영, 2016)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양육태도를 하나의 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가정환경과 같은 개인 외적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최효식, 2025). 최근 들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그릿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홍은비·노성향, 2022). ‘그릿(Grit)’은 개인이 스스로 세운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발휘하는 열정과 인내를 뜻하는 것으로(Duckworth·Peterson·Matthews, & Kelly, 2007),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유지하는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지속하는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임효진, 2019; Duckworth et al., 2007), 단순한 노력이나 의지력과는 구분되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관된 추진력을 의미한다.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실패나 좌절에 실망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더욱 집중하여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성실히 성취해낼 가능성이 크지만, 그릿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인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Bazelaïs·Lemay, & Doleck, 2016).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어떤 한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열정과 꾸준한 인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Seligman,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릿이 단순히 성격 특성을 넘어, 지능보다도 개인의 성취를 더 잘 예측하는 요인임을 시사하며, 학업이나 직업적 성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인지적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릿은 단지 성취와 관련된 특성에 그치지 않고,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

리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긍정적 정서, 행복감, 심리적 안녕, 삶의 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직접적으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이미영, 2023; 강문선·양수진, 2019; Jin & Kim, 2017; Duckworth·Quinn, & Seligman, 2009; Singh & Jha, 2008). 이런 결과들은 그릿이 개인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이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효선·양수진, 2018). 즉, 그릿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취해내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강하고 목표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열의와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릿은 학업이나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 다양한 장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좌절을 완화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해 그릿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이처럼 그릿은 타고난 재능과는 달리 꾸준한 노력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는 내적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부모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태도는 자녀의 그릿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박은주, 2023; 박용진·나승일, 2019; 한정옥·박선미, 2018; Guerrero·Dudovitz·Chung·Dosanjh, & Wong, 2016). 부모의 정서적 지지,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통제감을 높이며(강기연·김종훈, 2024; Tangney·Baumeister, & Boone, 2004), 이는 궁극적으로 그릿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 또한 자녀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심리적 자산인 그릿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조기원, 2023; Jackson·Bonnie, & Steve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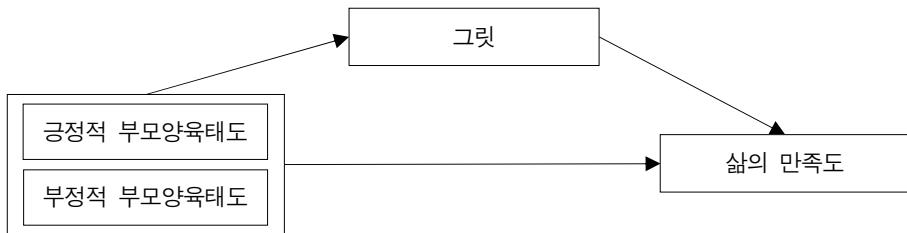
반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정일영, 2024; 김은혜·김민정, 2020; 한수연·박용한, 2018).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면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유정옥·정문경, 2016), 전반적인 동기 수준도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문은식·배정희, 2010). 또한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또한 청소년의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도 보고되었다(장은아·정혜원, 2023). 이와 같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가 스스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내적 동기의 발현을 저해하고(Ryan &

Deci, 2000), 그 결과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릿 역시 낮아지게 만든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율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그릿을 촉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이미라·전향신, 2020; Lin & Chang, 2017).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형성 과정이 단순히 가정의 분위기나 양육환경의 긍정성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구체적으로 자녀의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그릿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인과적인 영향 관계를 추론하여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긍정적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그릿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양육행동을 부모가 학습하고 습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조직의 리더(도미향·노기자, 2025), 예비상담자(이지혜, 2024), 예비유아교사(이미란·탁정화·이혜원, 2020), 아동 및 청소년(도미향·유영주, 2025; 고수연·이미나, 2024; 김은희, 2024; 오진주·송교원·이창훈, 2023), 대학생(김정은·조여진·정정임, 2022; 박진희·권해수, 2022; 오경화·탁진국, 2020)을 위한 그릿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자녀의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향후, 청소년 자녀의 그릿을 향상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자료를 사용하였다. KCYPS 2018의 조사 모집단은 201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다. 교육부의 2017년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패널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2018년부터 현재 까지 매년 측정하고 있는 종단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도에 해당하는 4차년도 자료 중 2021년 기준 고등학교 1학년 패널(2018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21년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는 총 2,265명으로 이 중 남자 청소년은 1,217명(53.7%), 여자 청소년은 1,048명(46.3%)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N=2,265)

변인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
성별	남	1,217	53.7
	여	1,048	46.3
학교	일반고	1,794	79.2
	자율형고	148	6.5
	예술·체육고	30	1.3
	과학·외국어고	46	2.0
	마이스터고	28	1.2
	특성화고	200	8.8
	기타	8	0.4
	무응답	11	0.5
	변인별 합계	2,265	100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척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kinner, Johnson 그리고 Snyder(2005)가 개발한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A)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KA)를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긍정적 양육태도 12문항, 부정적 양육태도 12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긍정적 양육태도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의 문항들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 ‘강요’, ‘비일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 부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2) 그릿(Grit) 척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는 그릿(Grit)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이 개발한 Grit-s 척도를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역한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

다. 2개의 하위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을 측정하며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흥미유지의 4문항은 부정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채점 처리하였다. 그릿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1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척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는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개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셋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그릿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model 4)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을 95% 신뢰 구간에서 샘플 5,000개로 지정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평균은 3.11(SD=.45),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평균은 1.97(SD=.49), 그릿의 평균은 2.57(SD=.37),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2.61(SD=.51)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Kline(2015)이 제시한 왜도 < 13, 첨도 < 18 | 기준 내에 있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r=-.45, p<.001$) 그릿($r=.22, p<.001$) 및 삶의 만족도($r=.39,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릿($r=-.28, p<.001$) 및 삶의 만족도($r=-.24,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그릿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32, p<.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2,265)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그릿	삶의 만족도
긍정적 양육태도	1			
부정적 양육태도	-.445***	1		
그릿	.225***	-.276***	1	
삶의 만족도	.379***	-.242***	.318***	1
M	3.112	1.968	2.565	2.613
SD	0.451	0.490	0.374	0.508
왜도	-.258	.332	.269	-.152
첨도	.650	.196	1.053	.602

*** $p<.001$

2.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79.902$,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14.4%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79$, $p<.001$). 즉,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 분석 결과,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1%로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0.498$, $p<.001$)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25$, $p<.001$). 이는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그릿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을 동시에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324$, $p<.001$), 그릿 또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45$, $p<.001$).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N=2,265)

단계	경로	B	SE	β	t	R^2	F
1	긍정적 양육태도 \rightarrow 삶의 만족도	.427	.022	.379	19.491***	.144	379.902***
2	긍정적 양육태도 \rightarrow 그릿	.187	.017	.225	10.977***	.051	120.498***
3	긍정적 양육태도 \rightarrow 삶의 만족도 그릿 \rightarrow	.365 .333	.022 .026	.324 .245	16.795*** 12.724***	.201	284.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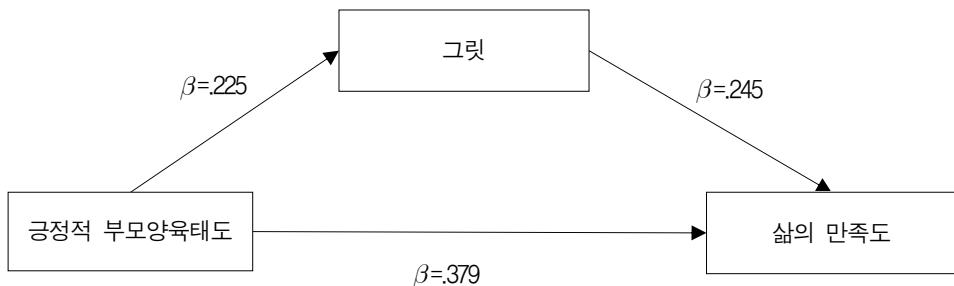
*** $p < .001$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때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5,000회로 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그릿을 통해 삶의 만족도로 가는 간접경로는 신뢰구간 .046 ~ .07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그것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N=2,265)

	β	SE	LLCI	ULCI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그릿→삶의 만족도	.062	.009	.046	.079
Bootstrap samples=5,000				



[그림 2]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3.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41.363$,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5.9%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242$, $p<.001$)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 분석 결과,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7.6%로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87.307$, $p<.001$),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76$, $p<.001$). 이는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그릿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을 동시에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67$, $p<.001$), 그릿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72$, $p<.001$).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때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5,000회로 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그릿을 통해 삶의 만족도로 가는 간접경로는 신뢰구간 $-.097 \sim -.061$ 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 6> 및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5>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N=2,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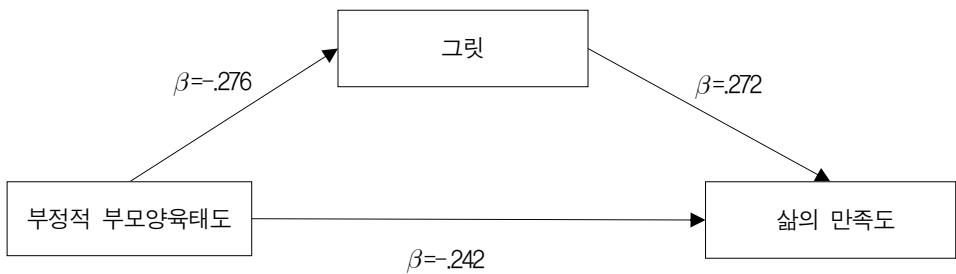
단계	경로	B	SE	β	t	R ²	F
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삶의 만족도	-.251	.021	-.242	-11.890***	.059	141.363***
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그릿	-.211	.015	-.276	-13.686***	.076	187.307***
3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	-.173 .369	.021 .028	-.167 .272	-8.183*** 13.308***	.127	164.740***

*** $p < .001$

<표 6>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N=2,265)

	β	SE	LLCI	ULCI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그릿 →삶의 만족도	-.078	.009	-.097	-.061

Bootstrap samples=5,000



[그림 3]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밝혀낸 선행연구들(박봉환, 2023; 김형희·박희서·최치원, 2020; 고미숙, 2017; 박은민·백선희, 2017)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일시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등학생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탐색, 대인관계 확대 등 다양한 발달 과업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삶의 만족은 주변의 중요한 타인, 특히 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서선숙·백진아, 2020), 자녀의 우울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낮추었다(전명순·김태균, 2018)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해왔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이 낮아지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 냉소적, 비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춘기의 정서적 민감성과 부모와의 갈등 빈도 증가를 고려할

때, 이 시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청소년에게는 상담 장면에서 부모와의 관계 양상, 특히 지각된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그릿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궁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높은 수준의 그릿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그릿이 높다는 결과의 선행연구들(박은주, 2023; 박용진·나승일, 2019; 한정욱·박선미, 2018; Guerrero·Dudovitz·Chung·Dosanjh, & Wong, 2016)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 개방적 의사소통, 그리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통제감을 높이며(강기연·김종훈, 2024; Tangney·Baumeister, & Boone, 2004), 이는 궁극적으로 그릿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각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그릿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통제적인 부모양육태도(정일영, 2024; 김은혜·김민정, 2020; 한수연·박용한, 2018),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부모양육태도(장은아·정혜원, 2023)가 자녀의 그릿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불신이나 위협을 경험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저하되고 학습된 무기력(유정옥·정문경, 2016)이나 동기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문은식·배정희, 2010). 이러한 조건은 자녀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태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릿을 저하시키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Ryan & Deci, 2000). 이처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단지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동기의 지속성과 같은 심리적 역량과도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의 목표지향성과 성취동기 형성의 핵심적인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릿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단지 성취와 관련된 특성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그릿은 궁정적 정서, 행복감, 심리적 안녕, 삶의 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궁정심리자본의 구성 요소로서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영, 2023; 강문선·양수진, 2019; Jin & Kim, 2017; Duckworth·Quinn, & Seligman, 2009; Singh & Jha, 2008). 이러한 측면에서 그릿이 높은 청소년은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느끼고, 자신의 노력이 가치 있다는 내적 확신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는 결국 삶에 대한 궁정적인 평가,

즉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효선·양수진, 2018).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적 자원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온정적이고 일관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 자기효능감 및 정서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장기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릿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박은주, 2023; 박용진·나승일, 2019; 한정우·박선미, 2018; Guerrero·Dudovitz·Chung·Dosanjh, & Wong, 2016). 특히 그릿은 단순한 성취 동기나 끈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선행연구(이미영, 2023; 강문선·양수진, 2019; Jin & Kim, 2017; Duckworth·Quinn, & Seligman, 2009; Singh & Jha, 2008)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은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도전과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동기 자원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높아진 그릿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는데, 그릿이 높은 청소년들은 단기적 기쁨이나 성공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의 성취를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Duckworth·Quinn, & Seligman,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그릿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통제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정일영, 2024; 김은혜·김민정, 2020; 한수연·박용한, 2018)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과도한 통제나 비일관성, 혹은 정서적 무관심은 자녀의 내적 동기를 약화시켜 그릿의 핵심 요소인 끈기와 열정의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녀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의지나 성취 경험을 갖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삶에 대한 만족감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단지 외적 환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을 시사한다(Jin & Kim, 2017; Singh & Jha, 2008).

또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062$)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가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

일수록 청소년의 그릿이 강화되고, 이러한 그릿이 다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eta=-.078$)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경험할수록 그릿이 약화되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양육태도 모형의 간접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 보다는 부정적 양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의 촉진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정적 요인의 저해 효과를 줄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긴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두 간접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의 실제 적용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강화와 함께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설명력(R^2)이 각각 .051(5.1%), .076(7.6%)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력의 범위로 제시되는 .10-.30(Kline, 202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청소년의 그릿은 단번에 형성되거나 변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성격특질로, 단일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자기통제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회복탄력성 등의 개인 내적 요인이나 또래관계, 교사의 피드백, 학교 분위기 등 맥락적 요인이 그릿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만으로 그릿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설명력도 .059(5.9%)로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또래관계, 진로 불안, 학교생활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자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에 있어서 부모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의 그릿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한 양육행동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청소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그릿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육환경 개선과 개인의 내적 자원 강화의 두 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담 장면에서 부모교육과 자녀의 동기 강화 개입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에게는 지지적 의사소통, 정서적 수용, 자율성 존중 등의 긍정적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자녀에게는

도전과 성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함양하는 상담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주관적 안녕이나 삶의 만족을 다루기보다는 그릿을 중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부모의 변화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자기효능감을 회복시키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재적 통제감을 강화하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목표 명료화, 회복탄력성 함양 등의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정서적 연결을 회복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은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당 데이터는 전국 단위 표본을 기반으로 구성된 자료로,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청소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높아진 학업적 요구와 진로 불안, 정체성 탐색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해당 시기의 청소년들은 개인의 내면적 자원, 즉 그릿의 발휘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 그릿,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 탐색은 청소년의 과도기적 시기에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을 다루었다는데 연구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적 요인인 부모양육태도와 내적 요인인 그릿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가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단일한 요인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복잡한 구성 개념이며, 외적 환경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결과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도 있었으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는 청소년의 외적 환경이 그들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삶의 질에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함께 다룸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단선적인 긍정-부정의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청소년 역시 이를 이중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부모양육태도를 양가적 관점에서 접근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긍정적 양육이 가지는 보호요인으로써의 기능과 부정적 양육이 지니는 위험요인으로써의 작용을 함께 연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모교육이 단순히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나 행동만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줄이는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청소년 자녀의 그릿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며,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장면에서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확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통제나 비일관적인 태도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인지시키고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도한 통제를 줄이기 위해 ‘자율성 존중 대화법 훈련’을 구상해볼 수 있고,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가정 내 규칙을 변복하거나 바꾸지 않고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모 자신의 반응패턴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연습하는 교육을 구상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 및 개입 전략에도 실질적인 적용가능성을 제공한다.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탐색함으로써, 그릿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상담자가 청소년의 내적 강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처전략을 안내할 수 있다.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삶의 만족도를 낮게 보고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그릿 향상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극심한 학업경쟁과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모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급격한 교육적·가족적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가 확인한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은 단순히 개인 및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청소년 발달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단순히 자녀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그릿과 삶의 만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체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양육행동을 확산시키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나아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교육적 환경에 청소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전국 단위로 표집한 대규모 표본이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 고등학교 1학년 패널(2018년 당시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 또래관계의 재형성 및 학업 부담의 증가 등 발달적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뿐만 아니라, 신분과 환경의 변화가 있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요인들 외에도 청소년의 그릿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가령 그릿은 개인의 성격특질과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삶의 만족도 또한 또래관계의 질이나 학업성취도, 사회적 지지, 진로에 대한 불안감 등의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인 변인이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라는 단일 요인만으로 이들 변인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특성을 비롯한 환경적 특성을 폭넓게 고려한 다변량 모형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그릿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릿이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이 확인되었으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개입 전략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릿은 단순히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교육적·환경적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그릿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교육현장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의 그릿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릿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61$)는 통계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 기준($\alpha \geq .60$)을 충족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측정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 다소 부족함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릿 척도는 아동용 척도로, 문항들이 청소년의 발달 수준과 언어 수준, 생활 수준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에 맞게 문항 내용과 문항 수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문항들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 기반하여 그릿을 측정하는 문항들인데,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적·상황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거나 하위요인을 확장하여 측정의 폭을 넓힘으로써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연·김종훈(2024).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9), 196-203.
- 강문선·양수진(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화·강박열정과 그릿(Grit)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79-101.
- 고미숙(2017).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 8(1), 89-104.
- 고수연·이미나(2024). 그릿증진 진로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회복탄력성, 자아분화에 미치는 효과. *휴먼서비스문화연구*, 6(1), 79-103.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윤정(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및 비행경험의 조절효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 39(39), 177-204.
- 기채은·이예진·노영민·노진원(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사회 인식 정도의 관련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대한보건연구*, 45(4), 11-22.
- 김선미·박수진·김경아·김영희(202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30(8), 325-348.
- 김은혜·김민정(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 및 학업적응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7(5), 405-431.
- 김은희(2024). 학습부진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그릿증진 학업상담프로그램의 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21(3), 133-160.
- 김정은·조여진·정정임(2022).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8(2), 157-162.
- 김지경·송현주·김균희·윤현솔(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명·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형희·박희서·최치원(2020). 청소년의 자존감 변화와 영향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9), 159-166.
- 김희명·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 도미향·노기자(2025). 리더의 코칭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그릿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코칭연구*, 17(4), 77-96.
- 도미향·유영주(2025).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22(2), 149-171.
-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이봉주(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은식·배정희(2010). 학습사 및 사회적·동기적 변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24(1), 183-205.
- 박봉환(2023).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 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10(2), 97-110.
- 박성희·최은영(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 35(35), 53-83.
- 박신영·정혜원(2023). 중학생의 학업열의 영향 변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 129-144.
- 박용진·나승일(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소속감,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그릿(Grit)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2), 97-120.
- 박은민·백서희(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행동과 행복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8(4), 149-166.
- 박은주(2023).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창의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0(3), 23-42.
- 박주희(2016).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1-22.
- 박진희·권해수(202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23(1), 97-116.
- 서선숙·백진아(2020).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하교육연구**, 26(4), 497-512.
- 서재욱·정윤태(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 신유진·정혜원(2025). 중·고등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종단적 변화 및 영향요인 탐색.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5(5), 933-949.
- 안지혜·윤유동·임희석(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우리말글**, 14(2), 197-208.
- 염유식·김경미·이미란·이진아(2014).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경화·탁진국(2020). 그릿향상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태도성숙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4(1), 21-46.
- 오윤선·최아람(2019). 기독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발달과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7(1), 207-246.
- 오은주·남재걸(2017). 청소년과 공감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2), 209-220.
- 오진주·송교원·이창훈(2023).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그릿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공업교육 학회지**, 48(2), 103-120.
- 유정옥·정문경(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73-95.
- 유혜선·조영민(2025). 주거 및 지역 불안전과 아동·청소년 우울의 관계: 삶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조

- 절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3(2), 55-75.
- 이미라·전향신(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 이미라·탁정화·이혜원(2020).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0(17), 1255-1282.
- 이미영(2023).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74, 123-146.
- 이성희(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혜(2024). 예비상담자인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을 위한 그릿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9), 541-554.
- 임낭연·이화령·서은국(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1-47.
- 임효진(2019). 그릿 개념의 재정립: 목적, 열정, 인내의 재검토. **교육심리연구**, 33(3), 317-339.
- 장은아·정혜원(2023).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 탐색: 랜덤포레스트와 SHAP 적용. **교육학연구**, 61(1), 31-63.
- 전명순·김태균(2018).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16(1), 123-132.
- 정일영(202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85, 99-119.
- 조기원(2023).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청소년의 그릿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30(9), 203-229.
- 진병주·정혜원(2020).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친구 및 교사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141-165.
- 최형임·문영경(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45), 189-209.
- 최효선·양수진(201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105-123.
- 최효식(2025).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심리적 특성 잠재집단 탐색 및 영향 요인 검증: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2), 159-17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4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수연·박용한(2018). 중학생의 그릿 변화와 관련된 가정·학교 환경요인 탐색. **열린교육연구**, 26(4), 175-201.
- 한정욱·박선미(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지지와 학업성취압력이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165-182.
- 허미경·도미향(2025).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 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1), 87-109.
- 홍은비·노성향(202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 자율성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4(3), 1-15.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zelaïs, P., Lemay, D. J., & Doleck, T.(2016). How does grit impact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science?. *European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4(1), 33-43.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4), 169-208.
- Darling, N., & Steinberg, L.(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 Quinn, P. D., & Seligman, M. E.(2009).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40-547.
- Duckworth, A. L., & Seligman, M. E.(2005). Self-discipline outdoes IQ in predicting academic performance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Science*, 16(12), 939-944.
- Guerrero, L. R., Dudovitz, R., Chung, P. J., Dosanjh, K. K., & Wong, M. D.(2016). Grit: a potential protective factor against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behaviors among Latino adolescents. *Academic pediatrics*, 16(3), 275-281.
- Hayes, A. F.(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 4-40.
- Jackson, M. H., Bonnie, C. N., & Steven, R. C.(2019).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Overparenting, Grit, and Academic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60(2), 189-202.
- Jin, B., & Kim, J.(2017). Grit, basic need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8(1), 29-35.
- Kline, R. B.(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ine, R. B.(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5th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Lin, C., & Chang, C.(2017). Personality and Family Context in Explaining Grit of Taiwanese High School Students. *EURASIA Journal of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13(6), 2197-2213.
- OECD(2022). *PISA 2022 Results(Volume II): Learning During - and From-Disruption*. Retrieved from <https://gpseducation.oecd.org/>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ingh, K., & Jha, S. D.(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Spec Issue), 40-45.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2.
- Yang, Y.(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Moon, Min Kyung*

This study examines whether gri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o this end, 2,265 first year high school students (as of 2021)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from the 4th year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SPSS 29.0 and SPSS PROCESS Macro 4.2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ositive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rit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negative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grit and life satisfaction. Grit and lif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econd, grit ha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confirmed that grit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and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Keywords :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high school students, parenting attitude, life satisfaction, grit

* Youth Counselor, Suwon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